

승실철학의 성과와 위상

김기순*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승실철학의 성과(발자취)
- III. 승실철학의 위상
- IV. 승실철학의 진로와 전망(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질문에 대하여 필자는 여러 가지로 해답을 찾아보려 노력하였으나 크게 성공한 것 같지 않아 불만스러웠는데, 최근에 아주 시원스러운 해답을 듣고 손뼉을 친 적이 있다. 그 해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 쓸개 빠진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내 고향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백남준 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매

* 승실대 명예교수

우 큰 충격을 받았다. 20분쯤 걸린 퍼포먼스(Performance)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연속해서 질문을 퍼부었다.

질문: 아직도 예술이 사기라고 생각하는가?

답 :그럼, 예술은 사기지.

질문: 왜 사기라고 생각하나?

답 : 재미있으니까.

질문: 피아노는 왜 넘어뜨리게 했나?

답 : 할 일이 없어서 그랬지.

할 일이 없어서 멀쩡한 피아노를 망가뜨리고, 예술은 재미있으니까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에 몰두하고 그 결과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에 반해서 필자가 철학을 전공으로 택했을 때에, 그것은 재미가 있어서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크게 이로움을 줄 것 같아서 택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것 같았고, 그것이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만들어가는 일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 그저 막연하게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엄격하게 따지면, 철학이 인생을 바로 사는 일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검증된 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철학을 택했다는 생각과 함께 어찌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결단을 내리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나마 필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형편이 훨씬 좋은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교수로 봉직하다가 몇 년 전에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였고, 지금은 명예교수로서 아직까지 교단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철학을 필두로 인문학에 속한 모든 학과들이 총체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숭실대학교와 한국사회에 연하여 전 세계의 위기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정신의 위기, 가치관의 위기에서 파생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II. 승실철학의 성과(발자취)

승실철학의 성과를 논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하나는 대학에서 철학과를 개설하지 않고 철학을 정규 학과목으로 개설하여 보급시킨 한국 최초의 대학이라는 관점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승실대학교에 철학과가 개설되어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켜 얻어낸 성과를 토대로 하여 접근하는 방식이다.

(1) 승실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식대학 인가를 받아 개교한 대학이다. 1897년 평양에서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후 12년이 지난 1909년에 승실대학교는 정식 교과목으로 철학과 윤리학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1학년에 윤리학과 철학개론이 개설되었고, 4학년에 심리학 강좌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1920년부터는 교과과정이 약간 개편되어 윤리학이 2학년에, 철학과목이 4학년 과정으로 옮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 철학개론은 교양과목으로써 1학년 내지 2학년에 개설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1920년에서 30년대에 승실대학교가 철학을 4학년 학과목으로 개설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교양과목의 수준을 넘어 전공필수나 전공 선택의 성격을 지닌 학과목으로 다루어졌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강의 내용이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고대 및 중세철학에서 시작하여 근세철학과 현대철학이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현상학과 실존철학의 내용도 보이고, 논리학과 윤리학의 이론들이 다양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초창기 승실대학교에서의 철학 강의는 철학 일반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소규모의 철학과로 보아도 무리가 없으리라는 생각이다.

필자가 여기에서 승실대학교가 한국대학들 중에서 철학을 최초로 강의한 대학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서양철학을 지칭하는 말임을 밝혀두고 싶다. 동양철학이나 한국철학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고, 대학에 준하는 기관들에서 강의가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요컨대, 숭실대학교는 한국 최초로 대학인가를 받아 서양철학을 소개하고 강의한 한국 최초의 대학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매우 값진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다.

(2) 그러나 서울 영락교회에서 숭실대학교가 재건되기 이전의 평양 숭실에서는 오늘과 같은 학과의 개념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54년 숭실이 재건되면서 숭실 철학과는 경제학과, 법학과, 영문학과 사학과와 더불어 정식 학과로 인가를 받아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서울 숭실에, 이전에 없었던 철학과가 하나의 학과로 포함된 것은 평양 숭실에서 철학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강좌로 개설된 것과, 그에 영향을 받아 배출된 인재들의 노리에 철학이 그 당시 한국의 상황 인식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학과가 개설된 이후에 숭실대학 철학과는 주로 민중을 계몽하고 교양시키는 일에 주목하고 그 일에 앞장서 왔다. 그것은 “유용한 지식을 다양하게 교수하여 실생활의 제 분야에서 책임 있는 일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출발한 숭실대학교의 건학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민중을 계몽하고 교양시키는 일은 개교 당시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매우 적절한 목표설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땅에 보급하고 기독교 정신을 전파할 인재의 양성에 철학적 사유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숭실이 재건된 1954년 당시 한국의 사회적인 상황도 개교 당시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그 동안 기독교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급되어 한국 사회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다. 그러나 6·25 내전(한국전쟁)을 겪었고 1953년 휴전 협정이 체결된 지 1년 남짓 지난 시기으로써 한국사회와 한국인이 처한 상황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것이었다.

민족간의 전쟁으로 남·북 당사자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을 초래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치유불능의 상태로까지 치달았다. 물질적 빈곤과 정신적 황폐함에 더하여 그 모든 것이 한국사회와 한국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렸고, 의욕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한국인들에게 대학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열어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정신적인 위로와 희망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이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일러주는 정신적인 방향 제시가 참으로 긴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 역할을 자임하고 앞장서 나선 것이 그 당시 송실철학의 자세요, 상황인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계몽을 목표로 삼고 송실대학교 철학과가 심혈을 기울여 벌인 사업 중 특히 활만한 것으로 <송실 철학 사상강좌>가 있다. 1960년 10월 “현대 철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시작된 철학강좌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제 8회 “휴머니즘의 탐구”를 끝으로 막을 내리기까지 당시의 지식인에게는 물론,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행사는 70년대 중반에 중단되었는데, 거기에는 당시의 전제주의적 군사정권의 방해를 받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송실 철학 강좌의 중단은 우리나라와 민족의 정신사적 발전에 큰 손실이며 통탄해 마지않는 일이라 하겠다. <송실 철학 사상 강좌>의 주제와 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회 : “현대철학의 과제”(1960년 10월)

- | | |
|---------------------------|----------|
| 1. 철학의 진흥(논리적 실증주의를 중심으로) | - 김준섭 교수 |
| 2. 근대사상과 실존(실존철학을 중심으로) | - 이종우 교수 |
| 3. 창조적 지성의 철학(실용주의를 중심으로) | - 안병욱 교수 |
| 4. 현대철학과 우리(한국사상과 관련하여) | - 박종홍 교수 |

제2회 : “자유의 심포지움”(1962년 11월)

- | | |
|---------------|----------|
| 1. 자유의 철학 | - 안병욱 교수 |
| 2. 근대적 자유의 개념 | - 최재희 교수 |
| 3. 동양인의 자유 이념 | - 김경탁 교수 |
| 4. 기독교의 자유관 | - 고범서 교수 |

제3회 : “새 시대의 사상적 탐구”(1968년 11월)

- | | |
|-------------------|----------|
| 1. 인간 상실과 인간 회복 | - 안병욱 교수 |
| 2. 서양적 사고와 동양적 사고 | - 이기영 교수 |
| 3. 신화적 사고와 이성적 사고 | - 최명관 교수 |
| 4. 고전과 현대 정신 | - 조요한 교수 |

제4회 : “고전과 현대의 대화”(1969년 11월)

- | | |
|-----------------------|-----------|
| 1. 창조적 지성(듀우이를 중심으로) | - 안 병욱 교수 |
| 2. 자연과 인생(노자를 중심으로) | - 김 능근 교수 |
| 3. 정의의 실현(플라톤을 중심으로) | - 최 명관 교수 |
| 4. 불안과 신앙(키엘케골을 중심으로) | - 안 병무 교수 |

제5회 : “문학 속의 철학”(1970년 11월)

- | | |
|-----------------------------|-----------|
| 1. 비극의 본질(오이디프스 왕을 중심으로) | - 조 요한 교수 |
| 2. 행동적 지성(파우스트를 중심으로) | - 안 병욱 교수 |
| 3. 신과 인간(도스토옙스키를 중심으로) | - 안 병무 교수 |
| 4. 문학과 사상(춘원 대 동인, 소월 대 용운) | - 김 현승 교수 |

제6회 : “역사의 창조”(1971년 11월)

- | | |
|--------------------|-----------|
| 1. 역사의 구조 | - 안 병욱 교수 |
| 2. 혁명과 신화(맑스사관 비판) | - 양 호민 교수 |
| 3. 창조적 소수(토인비 사관) | - 지 명관 교수 |
| 4. 문화와 윤리 | - 김 석목 교수 |

제7회 : “지성의 좌표”(1972년 11월)

- | | |
|------------------|-----------|
| 1. 비판의 정신(소크라테스) | - 조 요한 교수 |
| 2. 방법의 철학(데카르트) | - 최 명관 교수 |
| 3. 정의의 철학(나이버) | - 고 범서 교수 |
| 4. 저항의 인간(한용운) | - 안 병욱 교수 |

제8회 : “휴머니즘의 탐구”(1973년 11월)

- | | |
|--------------|-----------|
| 1. 기독교의 휴머니즘 | - 고 범서 교수 |
| 2. 불란서의 휴머니즘 | - 최 명관 교수 |
| 3. 불교의 휴머니즘 | - 이 기영 교수 |
| 4. 한국의 휴머니즘 | - 안 병욱 교수 |

(3) 1970년대에 접어들어 숭실대학교 철학과의 강좌는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것은 숭실대학교 철학과의 배출하려는 인재의 성격이 단순히 교양인의 양성이라는 초기의 관점에서 벗어나, 철학을 전공으

로 연구하려는 전문적 인재의 양성으로 그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철학과의 커리큘럼도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 유럽철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현대 영미철학의 흐름을 반영하는 내용이 많아졌으며, 기존의 유럽철학의 내용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여 개설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특기할만한 것은 후기 한국철학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동양철학의 강좌가 다양하게 개설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에 개설된 강좌를 몇 가지 소개하면, 앞에서 필자가 지적한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명관 교수는 논리학, 분석철학, 데카르트와 베르그송 및 문화철학 등을 강의하였다. 문화철학의 강의를 통하여 그는 칸시어의 상징형식의 철학을 소개하여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조요한 교수는 서양 고대철학사와 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하여 헤겔철학과 칸트철학을 매우 열정적으로 강의하였다. 본래 그의 관심은 회합철학이고,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에 집중되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미학과 예술철학에 흥미를 갖게 되어 연구를 계속한 결과, 그 방면에 독보적인 업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를 양성하여 그 분야에서 큰 명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안병욱 교수는 미국의 실용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휴머니즘, 인도사상, 러셀등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근세철학 강좌를 개설하였는데, 그가 특히 좋아한 철학자는 스피노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숭실대학교에 기독교 윤리학을 보급시킨 공로는 고범서 교수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특히 진보적인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윤리학에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는 초기에는 부버, 고가르텐, 부르너 및 본 헤퍼를 강의하였고, 후기에는 라인홀드 니이버의 사상에 심취하여 열성적으로 강의하였다. 그는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 원론』을 원서로 강독하여 학생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주었다.

80년도에 본교 교수로 부임한 김기순 교수는 본격적으로 윤리학을 전공한 교수로서, 고범서 교수가 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그의 윤리학 강의를 계승하였다. 그에 더하여 그는 기독교 윤리학 일색이던 숭실 철학과에 메타 윤리학 등 현대 윤리학의 이론들을 소개하는 일에 힘을 쏟아 부었다. 후에는 사회 윤리학 강좌를 신설하여 윤리학을 개인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의

제도나 구조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히는 일에 역점을 두고 강의를 계속하였다. 그 외에도 이 동준 교수의 동양철학사와 유학사상 및 노장사상, 금 장태 교수의 현대 독일철학, 그 중에서도 특히 현상학 강의와, 김 이준 교수의 칸트 철학, 이 초식 교수의 인식론과 화이트헤드 강의 등은 그 당시로서는 한국의 학계에서 흔치않은 선구적인 강의들이었으며, 숭실대학교 철학과의 질적 향상과 좋은 전통의 수립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믿는다. 이러한 추세는 80년대로 이어지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강의 내용들이 보다 세분화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1980년대에 이르러 숭실대학교 철학부에 매우 중요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교수진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1981년도에 숭실대학교 철학과 출신의 김 기순 교수가 본교에 부임하여 윤리학 강의를 전담하게 되었다. 그 다음 해인 1982년도 제1학기에는 이 삼열 교수가 부임하였고, 제2학기에는 곽 신환 교수가 부임하여, 이 교수는 현대 독일철학 및 사회철학을 담당하고, 곽 교수는 동양철학과 한국철학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삼열 교수는 오랫동안 독일에서 수학하고 활동하다가 귀국하여 본교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곽 신환 교수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출신으로 당시로는 드물게 동양철학을 전공하였으며, 부임 후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던 동양철학과 한국의 철학, 특히 한국의 유학사상과 주역 및 노장사상의 보급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그 사이에 숭실대학교 철학과의 기틀을 세우고 다지는 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조 요한 교수(1993년)를 비롯하여 최 명관 교수(1991년)와 고 범서 교수(1981년), 그리고 안 병욱 교수(1985년)등이 정년으로 퇴임하여 명예교수 또는 원로교수 등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에서 활동을 계속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 외에도 김 능근 교수가 훨씬 전에 퇴임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 김 능근 교수와 조 요한 교수는 이미 고인이 되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고 애석함을 더 해주고 있다. 고 범서 교수와 조 요한 교수는 각각 숭실대학교 총장으로 봉직하기도 하였다.

원로 교수들의 퇴임과 더불어 신임 교수들이 부임함으로써 숭실 철학과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1988년도에 이르러서였다. 1988년에 하 중호 교수가 부임하여 논리학과 영·미 분석철학을 담당하고, 1990년에는 김 광명 교수가 부임하여 독일철학과 미학 및 예술철학을 강의하였다. 1996년에 두 분의 신입교수를 초빙하게 되었는데, 한 석환 교수는 조 요한 교수의 후임으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중세 철학을 담당하게 되었다. 백 도형 교수는 최 명관 교수와 하 중호 교수의 후임으로 본교에서는 주로 논리학과 영·미철학, 그 중에서도 특히 심리철학의 소개에 힘쓰고 있다. 그 외에도 김 기순 교수의 후임으로, 김 선욱 교수가 2003년도에 부임하여 윤리학과 정치철학 및 사회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2004년도를 기점으로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이 삼열 교수(1982. 4 ~ 사회철학, 역사철학)
- 곽 신환 교수(1982. 9 ~ 한국철학, 동양철학)
- 김 광명 교수(1991. 3 ~ 현대독일철학, 미학)
- 한 석환 교수(1996. 1 ~ 서양고중세 철학)
- 백 도형 교수(1996. 1 ~ 현대영미철학, 인식론)
- 김 선욱 교수(2003. 3 ~ 윤리학, 정치철학)

(5) 전문적인 철학자의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게 된 숭실대학교 철학과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연구 의욕을 진작시키는 일에 힘을 기울인 결과 많은 양질의 논문들이 쏟아졌다. 그 논문들을 모두어 책으로 엮어 낸 것이 『사색(思索)』이라는 학술지이다. 그것은 맨 처음 최 명관 교수에 의하여 발의되어 시작된 것으로써 당시에는 타 대학에서 엄두도 내기 힘든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사색은 1966년에 제1집이 발간되었으며, 1996년에 제11집이 그리고 2004년 말에 제20집이 출간되어 나올 예정이다. 학생들의 학회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학부에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지향하는 전공에 따라 여러 개의 동아리들이 조직되어 독서와 연구 및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학술 발표회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대학원에서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에 따라. 동양철학연구회, 사회철학연구회, 고전철학연구회를 위시하여 윤리문제연구회, 과

학철학연구회, 미학연구회, 칸트철학연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와 토론이 전개되고 있다. 기독교 철학 분야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데, 그것은 본교 교목이면서 철학에 남 다른 관심을 보이는 김 영한 교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들을 위시하여 국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많은 유능한 졸업생을 중심으로 차원 높은 콜로키움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해외의 유능한 교수를 초빙한 강연회와 토론회도 수시로 열리고 있다.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생으로서 학문을 계속하거나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철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된 '숭실철학연구회'가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의 지원과 성원 하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므로, 숭철회의 활동을 통한 숭실철학의 고유한 학풍의 진작도 기대해볼 수 있음직 하다.

(6) 숭실대학교 철학과는 1954년 개교 이래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숭실대학교 철학과는 몰량 위주에서 벗어나 질 위주로 소수정예주의를 채택하였다. 그 결과 숭실의 역사에 걸맞지 않게 타 대학처럼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지는 못하였다. 숭실 철학과가 지금까지 배출한 졸업생은 2004년 2월을 기준으로 할 때에, 학사 1071명, 석사 102명 그리고 박사가 22명이다. 졸업 후에 해외나 다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한 경우와 다른 분야, 예컨대 신학이나 종교계통 및 목회학 분야에서 취득한 학위를 포함하면 박사학위 소지자가 50명을 훨씬 상회한다. 숭실대학교 철학과에서는 또한 G.D.Busbee(미국 조지아주 지사, 1975.10.27), Harold Voekel(1976. 6.25), J.E. Talmage(1977. 7.15), 방 지일(1982.10.10), P.T.Lauby(U.B 재단 총무이사, 1986. 2.12), Luise A. Sanchez(페루 제1부통령, 1986. 3.27), Gillespie(미국 프린스톤대 교수, 1993. 2)등 7명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7)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 진출하여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면 숭실철학의 성과와 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숭실철학이 건전한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힘

을 쏟아왔고 그 결과는 많은 유능한 목사들을 배출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1996년을 기점으로 300여명의 졸업생들이 목회자로서 혹은 종교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도를 기점으로 삼으면 대략 400여명의 졸업생들이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본다.

다음으로 대학교수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다음을 차지한다. 졸업생 중, 순수하게 철학에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30여명에 이르고 있는 데 이 중에는 아직 전임교수직을 얻지 못하고 있는 졸업생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황 석영씨나 김 필신 씨 같은 명성 있는 문학 작가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연극배우나 드라마 작가를 위시해서, PD나 방송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신문기자, 출판업이나 광고계, 정치인, 기타 컴퓨터 관련 사업 및 사업체를 경영하는 졸업생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송실대학교 철학과 졸업생들이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정신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졸업생 가운데 사업에 성공하여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은 별로 들려오지 않고 있다. 그것이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의 풍토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바라기는 이른 바 청부(淸富)가 출현하여 한국사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Ⅲ. 송실철학의 위상

송실철학의 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위상이라는 말의 의미와 어떤 관점에서 위상을 정립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위상이란 그것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것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실대학교 철학과와의 위상은 다른 대학의 철학과와 대비시켜 결정하거나 아니면 송실대학교 자체 내에서 타 학과와의 대비를 통하여 결정짓거나 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다.

(1) 숭실대학교 철학과는 현재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인문학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에 철학과목은 대학에서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할 학과목으로 정해져 전공 필수나 전공 선택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철학은 철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강제성을 상실한 학과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철학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적 사고의 번거로움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에서 컴퓨터나 영어회화를 중요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학생들 대부분이 그 과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현상은 가깝게는 졸업 후의 취업과 쓸모 있음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한국사회 전반의 깊이의 붕괴로 이어지고 더하여 인간의 인간됨의 포기과 인류 문명의 전반적인 파멸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인간됨은 그의 정신의 위상에 직결되어있기 때문이다.

(2) 그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철학과 졸업생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과 연결되어 있다. 철학을 전공으로 택하고 연구를 계속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졸업생들이 14명에 이르고 있다. 학부 졸업생이나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3) 지금까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생 중 상당수가 기독교 각 교단 신학교에 진학하여 목회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숭실대 출신 목회자가 국내외에 있는 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본교 졸업생 중에서 신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수가 급속히 감소하고 오히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본교 대학원 철학과에 진학하여 공부하는 학생의 수가 많아졌다. 이들은 주로 중세철학이나 윤리학을 전공하게 되는 데, 2년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전문적인 철학 훈련을 통하여 보다 질 높은 목회자로 활동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교 철학과에서는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 과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고 있는 데, 예컨대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생명윤리 및 환경윤리 과목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4) 승실대학교 철학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졸업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이다.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도 전임자리나 안정된 직장을 얻지 못해 고통 받고 있는 졸업생들을 위하여 학교 당국은 애정 어린 배려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현재 많은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논리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2년 후에는 국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논리학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논리교육의 강화는 비단 유희 인력을 흡수하여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회나 국가 그리고 문명의 위기는 철학의 빈곤에서 연유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철학의 빈곤은 논리적 사고의 결핍과 윤리적 가치관의 결핍을 일컫는 말이다.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철학교육이 지향하는 바의 것이다.

철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근본적으로 진리의 탐구이다. 철학이 지향하는 진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논리적 사고의 훈련이요, 다른 하나는 윤리적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승실대학교는 논리교육의 강화에 힘쓸 것이요, 한국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세계 문명이라는 차원에서 윤리적 사고와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IV. 송실철학의 진로와 전망(나오는 말)

이제 마지막으로 송실대학교 철학과와 철학과는 진로와 방향에 대하여 언급할 단계에 이르렀다. 송실대학교 철학과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여러 방면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교양 있는 일꾼의 양성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다. 경제의 비약적 성장과 그로 인해 생겨난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한국인의 가치관의 혼란과 그들이 지향할 올바른 방향의 설정에 매우 큰 어려움을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더하여 송실대학교 철학과는 순수한 학문의 분야에서 활동할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송실의 철학도들은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문제에만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활동의 무대를 지구촌 전체에로 확장시켜 갈 것이다. 송실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업을 마치고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능한 고급인력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일자리를 얻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송실 철학과는 그러한 인재들을 활용하여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변혁시켜 나아갈 새로운 사상의 창출에 온갖 힘을 모두어야 할 것이다. 철학자의 임무가 근본적으로 한갓 이론의 창출에 멈출 수 없다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실천을 근본적으로 선도할 사상가의 양성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매우 시의에 걸 맞는 방향설정이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송실 철학과는 송실대학의 이념과 송실 철학의 정신이 담긴 송실철학의 학풍을 진작시켜가는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하겠다. 그것은 송실철학과 출신들이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와 삶의 터전에서 특출하게 활동을 하되, 그 속에 송실철학의 정신이 흠뻑 젖어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그것은 특히 '송철회'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전통이 쌓이고 거기에 창조적인 정신이 덧붙여짐으로 이룩될 것이다. 그것은 송실철학의 유능한 인재들이 결집하고, 송실철학의 특성과 정신이 덧붙여지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창조되어가는 과정에서 결실을 이루어낼 것이다.

앞으로 송실대학교 철학과는 한국의 사상계와 철학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현실이 그것을 기대하고 또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도덕

적으로 타락하여 큰 위기에 봉착해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인간성의 붕괴와 도덕적 가치관의 전도에서 찾아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하여 송실철학과는 깊은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그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하여 연구와 탐구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송실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진리와 봉사”의 정신에서 찾아낼 수 있다. “진리와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삶을 통하여 실천된 생명 있는 정신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며, 송실은 그 터 위에 세워진 살아 숨쉬는 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실대학교 철학과는 기독교의 정신을 근간으로 삼고 학문연구에 힘쓰며 그 성과를 삶으로 구현하는 역동적인 학과로 성장해가야 하겠다.

송실대학교 철학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승화시켜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한국사회는 물론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을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나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송실대학교와 송실철학가가 이 땅에서 살아갈 존재의 의미이며, 위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Traces of Soongsil Philosophy and the Present Phase

Kim, Ki-Soon

Soong Sil philosophy has made a great development since the foundation of Soong Sil University at Pyongyang in 1897.

① In 1909, passed 12 years after the foundation, Soong Sil University established philosophy as a general arts course at the first time in Korea. In this case philosophy means western philosophy.

② In 1954, Soong Sil University was reconstructed in Seoul with 5 academic departments. Philosophy department was included as a formal department at that time. It became a moment for a full-scale department of Soong Sil Philosophy. At first, Soong Sil Philosophy concentrated on the culturalizing of Korean People.

③ During 1970's, Soong Sil Philosophy turned their attention from the general culturalizing People to the bringing up of the professional, academic philosophers. More than 50 doctors have been produced from Soong Sil Philosophy Department.

But after 1980's, with the result of rapid industrialization, Soong Sil Philosophy with the other universities has faced a sudden decline and crises. We call this phenomena the humanity crises.

Facing this kind of crises, Soong Sil Philosophy has to find out the way for revitalizing philosophy, because the decline of Philosophy will result in the full

collapse of the society itself.

We can find the way from the two functions of Philosophy itself. The first comes from the logical way of thinking and the other from the practical life of the ethical ideal.

The present crises of modern society come from the lack of the right thinking and the decline of the ethical view points of value.

Our Soong Sil Philosophy will concentrate on the two approaches, namely, to revitalize Soong Sil Philosophy and to rescue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human culture throughout the World.

Key Words : Soong Sil University, Soong Sil Philosophy, Philosophy, PENSEE